

지역 매아리



정읍시,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내달 2일부터

정읍시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어종인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블루길) 퇴치를 위해 내달 2일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광역매립장(영파동 352-2)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정읍에서 정읍시인이 잡은 배스와 파랑볼우럭을 1kg 당 5000원씩 수매한다고 밝혔다.

시는 1960년대 후반 내수면의 어업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길·배스(1998, 2월 생태계교란외래동물 지정)가 하천에 정착하면서 수중 생태계를 지배하는 등 고유 생태계를 교란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관련해 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40kg을 수매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시켜 생태계 파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김대환기자

고창시 청문감사실 내부고객 공감 청문활동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내부고객 마음의 소리에 경청하는 공감 청문활동으로 직원들에게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얼굴이 담긴 장례장을 제작하여 직접 전달하기 위해 분서 및 지·파출소를 방문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등 소통의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혜진 순경은 "내 사진이 넣어진 장례장도 받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더 열심히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청문감사실에서 직원들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써주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내부고객의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객 보호활동을 선행적으로 펼쳐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 김명식기자

농촌생활 적응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문 활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예비 귀농귀촌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촌 적응과 농업창업 과정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21일 열린 준공식은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호근·장병식 도의원, 군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과 귀농귀촌협의회,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복분자로 588)에 조성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2016년 12월 착공해 2017년 말 완공됐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약 9개월)동안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농사를 지어 보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연스럽게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시설로는 예비 귀농인 30세대가 거주할 주택 30호, 교육관 2동, 공동체실습하우스, 냉동창고 그리고 가족단위로 직접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세대별 텃밭 등이 갖춰져 있다.

박우정 군수는 "예비 귀농인이 농촌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문의 주거와 영농기술 습득 문제를 이번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도시민이 고창으로 귀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귀농귀촌인과 선도 농가 등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착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에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 김명식기자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금지"

변산반도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건강한 탐방문화 조성 앞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지정장소 내 음주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자

소 내 음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지정장소 내 음주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자

원보전과장은 "이번 조치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7년 12월 12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안 이옥수기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표진인 원장 28일 정읍시민 대상 특강 '현대인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표진인 정신과 의원 원장이 오는 28일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표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읍시청 5층 회의실에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제6회 정읍 단풍야카데미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표 원장은 민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관리와 우울증 극복 방법'을 자신의 상담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전해줄 예정이다.

표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대학 정신과 외래교수,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부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표진인 정신과 의원 원장 대한자연치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SBS 주간포화 세상에 이던 일이,

JII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의학적인 조언을 친근하게 전해준 바 있다.

정읍 단풍야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 시민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해오고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로 실시된다.

/정읍 김대환기자



고창읍사무소에 위치한 전광판에 대기오염 정보 표출을 시작했다.

고창군 "대기오염 정보 전광판으로 확인"

고창군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창읍사무소에 위치한 전광판에 대기오염 정보 표출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광판은 고창읍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서 상시 측정 수집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등 3개 항목의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를 표시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주민의 환경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정보 상황은 환경부의 에어코리아,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예·경보 문자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고창 김명식기자

부안해경, 지역구조본부 운영 훈련 가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 사진)가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 하려고 '지역구조본부 운영'을 20일 4층 강당에서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부안해양경찰서 각 과, 합정, 파출소, 구조대가 참가, 위도 근해에서 한해 중이던 1500톤 급 상선 1 승객 22명이 타고 있던 낚시 어선과 충돌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다. 도상훈련은 대규모 해양사고에 대비한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구조계획 수립 등 대응능력 향상에 따른 실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려고 실시됐다.

박상식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요령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여주는 기식 훈련이 아닌 실천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해양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안 이옥수기자

샘골보건지소,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호응

정읍시 샘골보건지소가 질병이나 사고, 외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프로그램인 원예·미술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예·미술교실은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다.

샘골보건지소는 울림주간보호센터 등 5개 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의 지도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샘골보건지소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재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보건실 운영과 재활보조기구 대여 등 다양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보건실 이용 등에 따른 문의는 샘골보건지소 ☎063.589-6741~3)로 하면 된다.

/정읍 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ex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